

원자재 공동구매로 농가이익 높여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파주시는 한반도의 허리부분으로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서울서 약 40km 거리로 동쪽으로 양주군과, 북쪽으로 연천군과, 남쪽 고양시와 접하고, 김포군과 인접하고 있다. 남북 분단전에는 목포와 신의주를 연결하는 1번 국도의 일부인 경의선(통일로)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시의 중앙을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고, 많은 군부대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연평균 11.5℃로서 온화한 편이지만 연교차가 약 30℃까지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강수량은 1,299mm로 강수의 계절적 편차가 심해 연강수량의 약 70%가 6~9월에 내려 수해 피해가 많고, 10~3월은 50mm이하의 강수량을 보여 가뭄이 염려되고 있지만 비교적 닭을 사육하기에 수월한 지역이다.

파주육계분회는 2000년 4월에 육계사육농가 20여명이 모여 창립하였고, 조장준 초대 회장이 파주시 금촌동에 본회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분회 터전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춘경 분회장은 지난 2001년 9월 19

일에 회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분회 사무실을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61-5번지 재정빌라 2층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분회 활성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회원 구성은 일반닭 사육농가(일명 사계)와 군납하는 농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인근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15개 농가가 군납을 전담하고 있다. 사육규모는 약 40만수로 회원들의 평균 사육규모는 2만수이다.

회원들의 병아리 구입은 육계유통 2곳과 부화장 1곳으로 단일화하여 입추하고 있고, 사료는 품질과 단가가 유리한 인근 축협사료만 사용하고 있다.

파주육계분회에서는 매월 월례회마다 주제가 다르지만 최근에는 병아리 품질 문제와 군납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 되고 있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병아리 가격이 620원까지 치솟고 있고, 병아리 유통량도 많지 않아 입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령 어렵게 입추 하였지만 초기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병아리에 대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원들이 직접 종계를 사육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이다.

그러나 종계사육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육계 사육농가가 무턱대고 종계사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종계 위탁사육이나 종계 농가와 연중 계약체제로 선회하기 위한 종계장을 모색하고 있다.

종계장 선정은 병아리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연중 470원 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파주 지역에서 군납 닭고기 물량은 연간 약 9백톤으로 농가당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60톤을 납품하고 있다.

군납 닭고기는 10각 절단육이 대부분이고 아주 소량만 통닭으로 유통되는데 납품단가가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춘경 분회장은 2001년의 경우 납품단가를 2000년 대비 평균 9.7%까지 낮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가 책정시기도 늦어도 2월까지는 농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에 통보하는 것은 군납농가의 손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납하는 농가들은 병아리 가격이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육계생산비 저하 요인이 없는 상태인데 2002년 군납 단가도 10% 인하한다는 국방부측의 의견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이 국방부와 협상시 농가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임춘경 회장은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병아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종계장 선정을 마무리 짓고 아울러

군납단가 협의에 있어 내년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또다시 단가를 삭감한다면 파주육계회원들의 생존권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춘경 회장과 김영기 총무는 분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원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생산자의 개인적인 힘보다 단체의 힘이 더 강하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분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계**

**생산자의 개인 힘보다 단체의 힘이 더 강하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파주육계 분회 회원명단**

- 회장 : 임춘경
- 총무 : 김영기
- 감사 : 박찬섭
- 고문 : 조장준
- 회원 : 이종훈, 조성덕, 강종호, 구경서, 이규환, 김경래, 이인영, 성의표, 김한익, 한도삼, 김병환, 김종철, 김대기, 안종권, 윤정용, 김기영